

경기권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안산. 현재 안산에는 반월·시화공단 등 각종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것은 물론 서울 도심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주거지역도 다수 들어서 있다. 특히 안산지역에는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도 한창인데, 오늘의 주인공인 두산건설이 야심차게 건설하고 있는 '안산 초지 두산위브' 현장은 단연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미 잘 갖춰진 안산 구도심의 인프라는 물론 주변에 화랑유원지 등이 형성돼 있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초지역과 맞닿아 있고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더욱이 이곳 현장은 두산건설이 안산지역에 최초로 진출한 재건축 현장이라는 남다른 의미도 있다. 때문에 이곳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무엇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작은 사고로도 이와 같은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의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무재해를 실현하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기본과 원칙으로 주택명가 조성

# 두산건설, 안산 초지 두산위브 건설현장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 시스템 안전관리로 무재해 구현

이곳 현장에서는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로 8개동(총 695가구)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착공에 들어가 내년 7월 15일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엘리베이터 설치', '외부 로프 작업', '주차장 부대토목 작업', '유리·창로 작업' 등이 한창 진행 중이다.

때문에 추락과 협착 재해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대부분의 공정이 고소작업으로 진행되고, 자재 차량과 건설 기계 등의 진출입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당한 것이다. 또 이곳 현장의 특이점 가운데 하나는 현장 주변에서 '5일장'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이 서는 날에는 차량의 진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곧 철두철미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별다른 계획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는 위험공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곳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을 기본으로 하는 안전관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업 방법·시설물·보호구 수준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곳에서는 매주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하는 안전활동과 매일 '9 to 5'를 통한 안전관리까지 더해지고 있다.

공정별 업무책임자와 협력사 소장이 함께하는 '9 to 5'는 매일 아침 9시에 전날의 업무상황과 당일의 위험공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오후 5시에는 당일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내일의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하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이곳에서는 공정에 따른 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계 작업이 이뤄지는 구간에서는 상부에서 로프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정을 조절하면서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안전경영의 모범주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공통점은 사업주가 안전경영을 전개할 때 안전한 사업장이 조성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어떻게 안전경영을 펼치느냐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가 좌우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곳 현장에서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안전관리가 전개되는 이유는 박승동 현장소장의 남다른 안전경영이 크게 작용했다. 이곳에서는 ‘근로자의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라는 박 소장의 안전방침에 따라 ‘개인보호구 100% 착용’, ‘안전시설물 100% 설치’, ‘무재해 3배수 달성’을 목표로 안전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곳에서는 매일 각 공종별 안전보건책임자와 두산건설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들이 함께 모여 가시설 및 장비의 사용 계획, 작업의 우선 순위, 현장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TBM, 안전교육, 안전점검, 노사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협력사와의 공생안전관리도 적극 전개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 협력사만의 힘으로 설치하기 쉽지 않을 경우 두산건설의 자체 안전관리비로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15억 원 정도인데 준공이 8개월 남은 현재 거의 소진됐을 정도다. 이곳에서는 내년까지 약 2억 원 정도의 안전관리비를 추가로 투입해 협력사와 함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안전의 마음을 지역사회에도 전파

이곳에서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보듬는 맘 따뜻한 안전관리도 전개되고 있다. 근로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소방서, 구청, 지정병원과 연







계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곳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 회의 지각·불참 시 벌금제도를 운영해 모금된 금액을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 현장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펼쳐 성금을 전달하는 등 감성안전의 영역을 현장뿐이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정확한 위험성평가와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MSDS 교육내용 강화 및 유해위험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구 지급 등 보건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산지역에서 신(新) 주거 명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안산 초지 두산 위브 건설현장'. 이곳의 안전관리가 모범사례로 전국에 널리 전파된다면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재해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 미니인터뷰



박승동 현장 소장

#### 소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안전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곳에서 '근로자의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라는 경영방침을 세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건의 재해가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일 50여 명이 안전사고로 아픔을 당하고 있고, 그 중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해자의 가정, 해당 현장, 해당 기업, 국가 경제에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장 관계자 모두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 현장을 관리하심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공감이라고 할까요. 현장을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한 현장소장의 의지와 관리목표가 두산건설 직원, 협력사, 협력사 근로자까지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장이라는 큰 공간 안에 국적, 성별, 개성 등 각기 다른 여러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교육장과 휴식공간에 월간 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주요 위험사항 등을 게재해 누구나 현장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작업방법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있습니다.

#### 안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안전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보다 한 단계 더 안전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